

# 원로들 평생 일군 작품 ‘어디로’... 보존 방안 없나

대책 세우지 않으면 폐기 등 수순 대표작품 보존 길은 ‘미술은행’ 방식 등 제기, 순환구조 만들면 해결 단초 ‘절대 개인 문제 아냐...아카이빙 되지 않아 안타까움’

광주미술계 원로 작품들이 갈 곳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원로들이 늘어나지만 가장 골치아픈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작품이 폐기 처분되거나 방치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작품을 얼마간이라도 수용해줄 수 있는 공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수장고를 더 지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건립비용이 따라 붙는 문제라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 자녀들이 생활여건상 작품을 흔쾌히 물려받겠다고 나서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공미술관 수장고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전체 작가들을 대상으로 1년에 몇 점 정해놓고 구입해 소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로들 작품만 소장할 수는 없기에 공공미술관 소장은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원로들의 작품 보존과 관련해 진일보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데는 사회적 시각이 크게 작용한다. 무작정 이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다.

평생에 걸쳐 작업해온 작품들로 무작정 쓰레기장으로 향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술작품이 일반쓰레기처럼 다뤄져서는 안된다. 당장 70~80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의 추후 보존에 대해 항구적 대책이 세워진 경우가 드물다. 운 좋게 자신이 건축물을 짓거나 가족 혹은 자녀 중 재력있는 사람이 그 용도로 특별하게 건축물을 지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공동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작업실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작품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군데군데 삭아서 작품이 훼손되기까지 하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최근 들어 원로 작가 작품전을 열기 위해 원로 작가와 그 밑세대의 화가 작업실을 방문해본 기획자들의 입을 빌려보면 원로들의 작품에 대한 보존 방안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간파할 수 있다.

지역 대표적 젊은 기획자들로 꼽히는 예술공간집의 문희영 대표와 이강하미술관의 이선 학예실장 등으로부터 작업실 환경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먼저 문희영 대표는 강연군 원로작가의 개인전을 최근 성황리 열었다. 2부로 나눠 1부 전시는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2부 전시는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각각 진행했다. 1. 2부 전시에는 총 500여 점이 출품돼 선보였다. 문 대표는 이 전시를 위해 강 원로화가가 기거하고 있는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아파트로 지난 1월부터 출근하시피하면서 분류되지 않고 쌓여 있는데다 분산돼 있던 작품 5132점을 모두 꺼내 선별작업을 해야만 했다. 당시 문 대표로부터 너무 방대해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작업하기도 벅찬 나이에 접어들면 작품 분류를 작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어 이선 학예실장은 지난 5월 14일 개막, 오는 8월 2일까지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이라는 타이틀로 열고 있는



고 김병오 작가의 작업실 풍경. 아들인 김정훈 동국미술관 학예실장이 그대로 작업실과 창고를 보존해 폐기 수순을 밟지 않은 경우다.



오일특별전을 준비하며 출품작가의 작업실을 최근 찾았다. 이중 담양에 화실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박문중 화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강 원로화가의 아래 세대이지만 박 작가의 작품 역시 분류가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는 귀띔이다. 작가만의 분류 방식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박 작가의 경우도 작품 보존 문제는 원로화가들이 직면했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개성적 시각을 존중하더라도 많은 작품들의 보존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희영 대표는 “이들의 작품 보존 공간 마련 등에 대해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만 보려는 사회적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절대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카이빙이 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현장을 돌아보면

서 대개 안타까웠다”라며 “70대 이상의 작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의 양이 방대한 만큼, 이를 특정 장소에 보존하기도 어려우니 우선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학예실장은 “원로 작가들의 연구와 작품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이나 중진 작가들이 원로작가를 보고 작업을 한다. 중요한 자산이자 보물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또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가 돼 버리는 것이 문제다. 정책적 대안이 세워져야 이들이 광주 안에서 건강하게 창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원로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되고 아카이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 정리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작고했지만 김병오 작가(1949~2019)의 경우 아들인 김정훈 동국미술관

학예실장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자의 기록-큐레이터가 아버지의 그림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역전치 그는 부친의 작품 수백점을 작업실과 창고에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가 보존하는 경우가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근래 고 양계남 화가(1945~2023·전 조선대 교수)의 작품은 물려받을 주체가 부재해 다소 혼선이 일었고, 유명세가 더했던 황영성 화가(1941~2025·전 조선대 교수)의 작품들 역시 대안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학예실장은 “좋은 작품들도 흠여지거나 맥락이 깨져버리면 의미가 축소되거나 가치가 하락한다. 돌아가시면 보존보다는 활용도가 없어져 문제다. 작품을 찾는 요청이 줄면 작품은 더더욱 창고에 박혀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고 덧붙였다.

미술관 및 지인 등에 기증, 가족이 미술관 건립, 협감 처분 등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남도미술은행처럼 작품 구매·위탁·임대·순환 전시 구조 방식을 도입해 타개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작품을 구매, 이를 임대해 순환하게 하자는 것이다. 관공서나 동네 행정복지센터, 동네 경로당을 위시한 공공 시설 및 순환에 동참하는 사립 시설 등을 활용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시각이다. 이는 수장고를 지어 보존하자는 절대적 시각에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해 한해 갈수록 이들은 노쇠해간다. 특별한 대책 없으면 이들이 남긴 작품은 설 곳이 없게 된다. 예술가의 흔이 깃들어 있는 작품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그들의 남아있는 대표작들만이라도 영구 보존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kwangnam.co.kr](mailto:rainidea@kwangnam.co.kr)

## 예술영화 버팀목 ‘광주극장’ 들꽃영화상 공로상 수상

기획전·GV 등 통해 지역 영화 생태계 저변 확대

광주극장이 한국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인 ‘제13회 들꽃영화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주극장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독립·예술영화 상영 문화를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열린 ‘제13회 들꽃영화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들꽃영화상은 한국 독립영화의 성취를 조명하고 창작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으로, 올해는 영화인과 관객, 후원자들의 응원 속에 대상과 감독상, 배우상, 각본상 등 총 15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공로상을 받은 광주극장은 지역에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온 대표적인 영화문화 공간이다.

대형 멀티플렉스 중심의 영화 상영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기획전 등을 이어오며 지역 관객과 창작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광주극장은 단순한 영화 상영관을 넘어 지역 영화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해왔다. 상업영화 중심의 배급 구조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을 소개하고, 독립영화 감독과 관객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며 지역 영화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공로상 수상은 광주극장이 쌓아온 시간과 역할을 한국 독립영화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극장이 독립영화 상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온 사례이자, 지역 영화문화가 한국 독립영화 생태계의 중요한 축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상식에서는 박봉남 감독의 ‘1980 사북’이 대상 수상했다. ‘1980 사북’은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극영화 감독상은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에게 돌아갔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상은 ‘양양’의 양주연 감독이 수상했다. 배우 부문에서는 ‘별밤’의 한예리가 여우주연상을, ‘얼굴’의 권혜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여우주연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인 배우 오민애가 여성 배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정기부한 상금 200만원이 함께 전달돼 독립영화계의 연대와 지지를 보여줬다.

MPA 프로듀서상은 ‘사람과 고기’의 장소정 프로듀서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MPA가 제공하는 항공 및 숙박 지원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퍼시픽스크린어워드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들꽃영화상 이경서 공동위원장은 “올해 들꽃영화제는 유난히 많은 관객과 영화인, 후원자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자리였다”며 “독립영화를 계속 만들고 지켜가려는 마음들이 모여 올해의 들꽃영화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독립영화와 창작자들이 계속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영화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들꽃영화제가 독립영화를 응원하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3회 들꽃영화상’ 수상작 및 후보작 상영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에서 진행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org](http://www.view2018.org)



허백련 작 '다로경관 목포여차'

##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윤곽... 참여작가 43팀 발표

매튜 바니·니나 카넬·테칭 시에 등 참여 광주 역사·연대 의미 조명 오월어머니집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43인(팀)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광주를 동시 대미술로 수놓을 비엔날레의 윤곽이 드러났다.

9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43팀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작가는 호주니엔 예술감독과 박가희, 브라이언 쿤인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함께 선정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You Must Change Your Life)는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Archaic Torso of Apollo, 1908) 마지막 구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과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변화를 신체와 지각이 재편되는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인간의 신체에서 공동체, 나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변화를 예술로 탐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온 니나 카넬, 매튜 바니, 아만다 행, 테칭 시에, 모나 벤야민, 안젤라 고,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 소흐랍 후라 등 국제적 작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니나 카넬은 전기와 물질,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시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튜 바니는 신화와 박가희, 브라이언 쿤인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함께 선정했다.

이런 비엔날레의 주제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 (You Must Change Your Life)는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Archaic Torso of Apollo, 1908) 마지막 구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과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비엔날레는 변화를 신체와 지각이 재편되는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인간의 신체에서 공동체, 나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변화를 예술로 탐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실천, 사회적 변화의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의 그림을 전시에 포함시켜 5·18 이후 이어져 온 치유와 연대, 창조적 실천의 의미를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전시는 분자적 차원의 미세한 변화에서 우주적 상상력까지 폭넓게 확장된다. 왕지아오는 후기 사회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실존을 회화로 풀어내고, 라픽 그레이스는 호흡과 움직임, 반복 수행을 통해 수피즘적 초월성을 탐구한다. 키리 달레나는 개인과 가족, 시위 군중으로 이어지는 집단적 신체의 변화를 다루며, 크리스트안 니암페타는 공동체와 연대를 통한 집단적 배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를 서로 다른 규모와 영역에서 이뤄지는 실천과 실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연대의 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전시 구성과 신작 프로젝트, 광주 현장 연계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kwangnam.co.kr](mailto:rainidea@kwangnam.co.kr)

